KIA타이거즈, 최고의 팬들까지 '삼위일체' 이뤘다

KIA타이거즈 2024 정규시즌 결산

<5> '구름관중' 전국구 인기구단

홈 73경기에 125만9249명 동원
구단 사상 최다 30경기 전석 매진
아홉 경기 연속 만원 관중 위업도
원정 경기는 절반 이상 티켓 동나

KIA타이거즈와 KT위즈의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맞대결이 열린 지난 6월2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를 꽉 메운 관중들이 응원전을 펼치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올해 KIA타이거즈가 정규시즌 우승과 한국시리즈 직행을 확정 지을 수 있었던 데는 선수단과 프런트의 케미스트리도 주효했지만 팬들의 응원까지 삼위일체를 이룬 것이 강력하게 뒷받침됐다.

전국구 구단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안방인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는 물론 전국의 적지에서도 언제나 구름 인파를 몰고 다니며 가장 화끈한 관중 동원력을 자랑하는 모습이었다.

이에 대해 이범호 감독은 "전국 어디를 가도 홈이나 마찬가지"라며 자부심을 드러냈고, 선수단 역시 경기장을 가리지 않는 뜨거운 응원을 등에 업고 마음껏 야구를 즐기며 승리하는 모습으로 보답했다.

실제로 KIA는 올 시즌 73차례 홈경기에 125만9249명의 관중을 동원했다. 타이거즈 역사상 최다 관중을 달성했고, 평균 관중 역시 1만7250명에 이렀다. 챔피언스필드가 2만500석 규모임을 감안하면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매 경기 구름 인파가 몰린 셈이다.

지난해 누적 관중이 71만7025명, 평균 관중이 1만99명에 그쳤던 것을 감안하면 놀라운 증가 추이다. 구단 사상 처음으로 100만 관중을 돌파했던 2017시즌에도 누적 관중은 102만4830명, 평균 관중은 1만4234명을 기록한 바 있다.

특히 홈경기 73회 중 30회에서 전석 매진을 이뤘다. 1만2500석 규모의 무등야구장을 사용하던 2009년 21회를 경신한 구단 역사상 최다 전석 매진 기록이자 올 시즌 홈경기 중 41.1%에 육박하는 비율이다.

타이거즈 역사상 최다 연속 전석 매진 기록도 새로 썼다. 지난달 7일 키움히어로즈전부터 30일 NC다이노스전까지 9경기 연속 만원 관중이 들어차며 무등야구장 시절인 1995년 8월4일 LG트윈스전부터 17일 삼성라이온즈전까지 6경기 연속 만원 관중 기록을 29년 만에 넘어섰다.

최다 연속 전석 매진 기록에는 주말보다 평일 경기가 많아 의미가 더 깊다. 네 번의 주말 경기와 다섯 번의 평일 경기를 합쳐 9경기 연속으로 챔피언스필드를 꽉 채우는 기염을 토했다.

구름 인파는 안방에 그치지 않았다. KIA가 원정을 떠난 71경기에는 119만4522명의 관중이 찾으며 평균 관중 1만6824명을 기록했다. 1만2000석 규모의 대전한화생명이글스파크, 1만6000석 규모의 고척스카이돔 등 상대적으로 관중석이 적은 규모의 경기장을 감안했을 때 안방과 큰 차이가 없었다.

또 원정 경기 71회 중 36회가 전석 매진으로 비율이 무려 50.7%에 이르렀다. 구장별로 따지면 잠실에 15번, 대전에 8번, 고척에 6번, 수원에 3번, 대구에 2번, 창원과 문학에 1번의 만원 관중을 받았다.

이렇게 홈과 원정을 가리지 않고 구름 인파를 몰고 다니면서 올 시즌 KIA가 치른 144경기에는 245만3771명의 관중이 들어찼다. 올해 KBO 리그가 1088만7705명의 누적 관중을 기록하며 1000만 관중 시대를 열 수 있었던 데도 큰 힘을 실었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파이널 라운드 돌입' 광주FC, 자력 잔류 굳힐까

내일 대구와 34라운드 홈경기
초반 분위기가 생존 여부 좌우

광주FC 허율(왼쪽)이 지난 6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FC서울과 경기에서 선제골을 터트린 뒤 축하를 받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파이널 라운드로 본격적인 강등 전쟁에 돌입하는 광주FC가 대구FC를 상대로 자력 잔류를 향한 순조로운 출발을 노린다.

광주는 18일 오후 7시30분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대구와 하나은행 K리그1 2024 34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정규 라운드 33경기를 마친 뒤 달빛 더비로 파이널 라운드 첫 경기를 치르게 됐다.

정규 라운드를 14승 1무 18패(승점 43), 7위로 마무리한 광주는 대구를 비롯해 제주유나이티드, 전북현대모터스, 대전하나시티즌, 인천유나이티드와 함께 파이널B에 속했다. 12위는 다이렉트 강등, 10위와 11위는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해 최소 9위를 확보해야 한다.

광주는 최근 쾌조의 흐름을 조성했다. 지난 1일 가와사키 프론탈레와 2024-2025 AFC(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리그 스테이지 2차전에서 1-0 승리를 거뒀고, 6일에는 FC서울과 정규 라운드 최종전에서 3-1 승리를 거두며 연승을 달렸다.

현재 광주와 10위 전북(승점 37)의 승점 차는 6점에 불과하다. 격차가 두 경기밖에 나지 않아 자칫 연패에 빠지게 되면 강등의 그림자가 언제든 닥칠 수 있어 파이널 라운드 초반에 분위기를 이어 최소 9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 단추의 중요성이 큰 상황에서 공격진의 부활은 반가운 요소다. 허율과 이건희는 각각 5월, 6월 이후 이어진 리그에서의 침묵을 깨는데 성공했고 자시르 아사니는 지난 7월 전력에 복귀한 이후 꾸준히 공격포인트를 올려주며 팀에 힘을 싣고 있다.

수비진도 연승 기간 단 한 골만 실점하면서 탄탄한 모습이다. 특히 주장 안영규를 중심으로 변준수와 김경재에 공수 양면에서 맹활약 중인 허율까지 중앙 수비 4인방의 견고함이 나날이 더해지고 있다.

A매치 휴식기를 통해 다시 에너지를 갖추게 된 것도 긍정적이다. 올 시즌 얇은 선수층으로 신음하고 있는 광주는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가고 있는 가브리엘 티그랑과 정호연, 김진호 등 주축 자원들이 충분히 체력을 회복했다.

반면 대구는 9승 11무 13패(승점 38), 9위로 정규 라운드를 마쳤지만 최근 4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며 반등에 성공했다. 특히 직전 경기에서는 전북을 상대로 후반 추가시간에만 두 골을 터트리며 4-3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고 세징야와 에드가 실바의 '세드가 콤비'는 여전히 위협적이다.

한규빈 기자

광양여고 축구 2연패·광주시체육회 男 스쿼시 금빛 스매싱

광주·전남, 전국체전 단체 선전
육상 고승환 4관왕·이은빈 3관왕

광주시청 전웅태(왼쪽 두번째부터)·김영석·성진수가 16일 경남 진주시 경남체고에서 열린 근대5종 남일부 계주(4종)에서 금메달을 합작한 뒤 윤일모(왼쪽) 감독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광주시청 근대5종팀 제공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폐막을 하루 앞둔 16일 광주와 전남 선수단은 득점이 높은 단체대진 종목에서 힘찬 메달 레이스를 이어갔다.

광양여고 여자축구는 대회 6일째인 이날 대회 여자18세이하부 축구 결승에서 울산 현대고를 3-0으로 꺾고 2연패를 달성했다.

순천시청 소프트테니스는 남일부 단체전 결승에서 경기선발팀에 0-2로 져 은메달을 획득했다.

목포여상고 여자배구도 여U18 결승에서 경남 선명여고에 세트스코어 1-3으로 져 은메달에 만족했다.

광주시체육회 남자 스쿼시는 남일부 단체전 결승에서 울산시체육회를 2-1로 물리치고 금빛 스매싱을 날렸다.

광주시체육회 여자 스쿼시는 여일부 단체전 결승에서 경남체육회에 0-2로 져 은메달을 차지했다.

광주 서구청 남자 펜싱도 남일부 에뻬 단체전 결승에서 전북 선발팀에 29-30으로 아쉽게 패해 은메달을 획득했다.

광주 동신고 소프트테니스는 남U18 단체전 준결승에서 충북 음성고에 3-4로 석패해 동메달을 차지했다.

광주 수피아여고 농구도 여U18 농구 준결승에서 부산 동주여고에 59-86으로 져 동메달에 만족했다.

조선대 남자 축구팀은 전날 부산 동명대와 남대부 준결승에서 5-1로 꺾고 은메달을 확보했다.

개인대진 종목과 기록 종목에서도 금메달이 쏟아졌다.

광주시청 육상 고승환·장지용·이재성·모일환은 이날 남일부 1600m계주 결승에서 3분10초18 기록으로 금빛 질주를 펼치며 2연패를 작성했다. 고승환은 한국신기록 1개(1600m혼성계주), 대회신기록 2개(200m·400m계주)와 함께 대회 4관왕(200m·400m계주·1600m혼성계주·1600m계주)에 오르며 이번 전국체전의 강력한 MVP 후보로 떠올랐다. 모일환은 3관왕(400m·1600m혼성계주·1600m계주)을 차지했다.

광주시청 근대5종 전웅태·김영석·성진수도 남일부 계주(4종)에서 총 1158점(펜싱 220점 2위·수영 296점 6위레이저런 642점 1위)으로 1위를 차지했다. 전웅태는 지난 14일 개인전 4종 금메달에 이어 2관왕에 올랐다.

광주 육상의 김지인(한체대 4)은 여대부 원반던지기에서 49m67을 던져 대회 3연패를 작성했다.

광주 동구청 복싱 한영훈은 남일부 라이트웰터급 결승에서 인천시청 김준기를 상대로 5-0 판정승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당구 포켓10볼의 진혜주(광주당구연맹)와 레슬링 그레꼬로만형 97㎏의 이재혁(광주체고2)도 금빛 사냥에 성공했다.

최지선·신규리·이은빈·박채경이 이어 달린 전남체고 여U18 1600m 계주도 금메달을 수확했다. 이은빈은 3관왕(100m·200m·1600m계주)에 올랐다.

최미선(강주은행)·이은경·유시현·남수현(이상 순천시청)으로 구성된 전남 여자양궁은 여일부 단체전 결승에서 경북선발팀을 6-0으로 완파하고 금빛 과녁에 성공했다. 복싱 여일부 플라이급의 박초롱(화순군청), 남대부 웰터급 국승준(한체대 4), 남U18 플라이급 최준원(전남과학기술고), 요트 일반부 혼성국제470급의 김창주·이경진(여수시청), 씨름 남일부 장사급 140㎏의 김민재(영암군청)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최동환 기자